

한여름 밤 외국인들이 가장 가고싶은 궁궐 '창덕궁'



서울시·관광재단, 야간개장 선호도 조사
창덕궁 이어 경복궁·창경궁·덕수궁 순

한여름 밤 외국인이 방문하고 싶은 서울의 궁으로 '창덕궁'이 가장 인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이 서울관광 공식 페이스북과 웨이보를 통해 외국인을 대상으로 궁궐 야간개장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약 43%가 한여름 밤 가장 방문하고 싶은 서울의 궁으로 '창덕궁'을 선택했다. 이어 경복궁, 창경궁, 덕수궁 순으로 선호도가 높았다. 31일 서울시가 발표한 이번 조사 결과는 지난 7월 2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댓글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로 한다. 설문에는 총 356명이 참여했다.

설문조사 결과, 한여름 밤 찾고 싶은 서울의 궁으로 창덕궁(156명)이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경복궁(121명) ▲창경궁(46명) ▲덕수궁(21명) 순이었다. 참여자 중에는 중국어권 외국인이 197명(중국어번체 110명, 중국어간체 87명)으로 가장 많았고, 영어(101명), 일본어(58명) 사용 외국인이 참여했다.

이은영 서울시 관광사업과장은 "가장 전통적인 것이 가장 한국적인 것이라는 말처럼, 서울의 고궁은 대다수의 외국인 관광객이 서울을 방문했을 때 가장 인상 깊게 둘러보는 장소"라며 "시 공식 관광정보 사이트인 비짓서울 홈페이지를 통해 궁궐의 야간개장 소식 외에도 다양한 서울 관광 정보를 만나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진희 기자 valere@metroseoul.co.kr

한여름 밤 창덕궁 전경 /서울시

17층 규모 홍대입구 복합역사 이달 개방

철도시설공, 연면적 5만4235㎡
업무·숙박 상업시설 내달 운영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에 지상 17층, 건물 전체 면적 5만4235㎡ 규모의 복합역사가 준공돼 8월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31일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따르면 업무시설, 숙박시설, 상업시설이 입주하는 홍대입구역 복합역사는 사업 주관자를 애경그룹으로 선정해 2014년 착공했다. 복합역사는 애경그룹이 업무시설을 사육으로 사용하게 돼 애경산업 등 6개 계

열사가 8월 입주를 앞두고 있으며, 294실 규모의 호텔과 판매시설은 내부 인테리어를 마치고 9월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민간재원 1640억원이 투입된 이 사업의 건설 기간에 연인원 15만명이 투입됐으며, 앞으로 상시근로자 500명이 근무하게 돼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된다. 철도공단과 서울시는 2010년 경의중앙선 지하화에 따라 용산체육문화센터~가좌역 간 6.3km의 도심구간 선로 상부 부지를 지역 친화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하

기 위한 협약을 맺고, 2016년 10만2천㎡ 부지에 경의선 숲길 공원 조성을 마쳤다. 홍대입구역역을 포함한 이 구간의 주요역사 상부부지 4곳 중 공덕역은 지난해 1월부터 운영을 시작했으며, 서강대역과 공덕역 인근 철도시설부지 개발 사업은 서울시와 마포구의 인허가를 추진 중이다. 은찬운 철도공단 자산운영단장은 "홍대입구역 복합역사 등 국유철도 부지를 활용한 개발사업에서 나오는 점용료 등 수입은 국가철도건설 부채상환 재원으로 활용돼 국가재정 건전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진희 기자

"車엔진 식혀줄 냉각수 점검하세요"

서울시, 휴가철 차량관리법 등 소개

조명 작동 확인·안전용품 구비하고
졸음운전 예방 2시간마다 휴식해야

폭염이 연일 지속되면서 여름 휴가철 차량 관리와 졸음운전 방지 등 특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서울시가 31일 휴서기 차량관리법과 발생하기 쉬운 교통사고 사례를 소개했다.

우선 여름휴가를 안전하고 즐겁게 보내려면 출발 전 차량 점검이 필수다. 타이어는 무더위로 달궈진 아스팔트에 직접 접촉하는 만큼 고온으로 인한 변형 가능성이 높다. 마모상태 확인은 물론 공기압을 평소보다 10% 높게 충전하는 것이 국지성 호우나 태풍 상륙 시 수막현상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

뜨거운 엔진을 식혀줄 냉각수 점검도 빼놓지 말자. 점검은 엔진이 완전히 식은 상태에서 해야 한다. 후드 아래 모든 벨트와 호스도 온도변화에 민감한 고무소재에 균열이나 절단의 징후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차량의 모든 조명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양쪽 와이퍼에 마모되거나 찢어진 흔적이 있는지 살펴보자. 정비가 잘 된 차량도 방심하지 말고 차량안전용품을 구비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휴가 등으로 장거리 운전이 많은 8월에

는 대형사고로 연결되기 쉬운 졸음운전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졸음운전 예방을 위해 2시간마다 휴식하고, 휴식 시에는 단순히 운전대를 놓는 것이 아니라, 휴게소, 졸음쉼터 등을 이용해 잠시나마 수면을 취하는 것이 피로회복과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적이다. 또한 여러 명이 한 차를 타고 가는 경우 차내 이산화탄소 증가로 졸음운전을 유발할 수 있다. 에어컨 작동 시에는 차량 공기를 외기순환 모드로 유지하거나 주기적으로 외기순환 모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여름철에는 차량 내 온도가 에어컨을 끈지 불과 10분만에 50° c 이상으로 상승할 수 있으므로 출발 전 에어컨 성능을 꼭 확인하자. 높은 온도는 운전자의 인지·반응속도를 저하시켜 사고 위험을 높인다. 또 어린이 동행 시에는 어린이가 차량 내에서 짧은 순간도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시내운전도 예외는 아니다. 여름철에는 무더위를 피하느라 사망사고 위험이 높은 야간 및 새벽시간대에 보행인구가 평소보다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지난해 8월 서울 시내에서 발생한 시간대별 교통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낮 시간대(10시~16시)에 비해 해질 무렵부터 늦은 저녁사이(16시~22시) 교통사고가 100건 이상 더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오진희 기자



"물벼락 맞으며 폭염 극복해요"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 31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에 버랜드에서 열린 여름 축제 '썸머 워터 펀'을 찾은 시민들이 시원한 물줄기를 맞으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연합뉴스

14일 '위안부 피해자' 위한 국악공연

국가 기념일 지정 첫 행사

지난해 정부는 '8월 14일'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14일은 첫 기념일이 되는 날이다. 8월 14일은 1991년 고(故) 김학순 할머니가 '위안부' 피해 사실을 최초로 공개 증언한 날이다. 2012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아시아연대회의"에 의해 '세계 위안부의 날'로 지정됐다. 그 후 2013년부터 민간에서 실시하던

기념행동이 올부터 국가 기념일로 제정돼,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령이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첫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기념한 인문예술 강연·공연 행사가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제 44회 인문예술콘서트 오늘에 영화 '귀향'의 조경래 감독과 '판소리공장 바다소리'의 공동대표 최용석 대표를 초대해 이들의 국악공연을 마련했다. /오진희 기자

시청 앞 '빗물놀이터' 11일까지 연장운영

서울시는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2018 서울 물순환 시민문화제' 기간에 운영하던 빗물놀이터를 오는 8월 11일까지 2주간 연장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연이은 폭염 속에서 빗물놀이터는 이 행사 기간 중 가장 큰 호응을 얻었다. 이에 따라 시는 빗물놀이터를 추가 운영기로 결정한 것. 서울광장 서측에 설치된 빗물놀이터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풀장과 워터슬라이드 각 2개, 탈의실 및 그늘막 텐트로 운영한다. /오진희 기자

오늘의 날씨

8월 1일

음력 : 6월 20일

수도권 날씨

39 ~ 28°C

운동 지수: [Progress Bar]

빨래 지수: [Progress Bar]

세차 지수: [Progress Bar]

외출 지수: [Progress Bar]

해돋이 / 05:36 | 해질 / 19:41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